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셋팅해 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여는 출애굽기-

출애굽기 24:12-18, 사도행전 7:18-22

정윤돈 목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저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종노릇과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마땅히 오직 복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로마서에 나온 그 제자들처럼 중요한 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여주시고 깨끗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다. 가기 일주일 전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유튜브로 복음소식을 잘 듣고 있으니 자료를 달라고 연락이 왔다. 어느 나라 선교사님이시냐고 물으니 캄보디아 선교사님이라고 하신다. 마침 캄보디아에 가는 일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선교현금을 드렸다. 한 선교사님과 성도 한 분을 연결시켜주어서 서로 기도제목을 소통하며, 선교현금도 하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팀을 짜서 선교현장에 가보기를 바란다. 또, 한 명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유명한 분이 총장을 담당하셨다. 그런데 동기 중 한 명이 비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영특하고 리더쉽도 있어서 눈여겨보면서 ‘저 친구는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목사로 인정받을 텐데 러시아로 갔다. 대학원 친구들끼리 선교소식을 전하는 카톡방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딸은 러시아 의대에 합격하고, 아들은 서울대학교 우주항공과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어려운 중에서도 코로나 현금을 하겠다고 하니 너무 기뻐했다. 기도하면서 감동되면 나의 나라, 후원하는 나의 선교사가 있어야 한다.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테니 여러분이 ‘나는 이 선교사를 후원해야겠다.’ 생각하면서 후원팀을 만들고 혹은 선교지를 방문하는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다.

오늘은 출애굽기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다. 출애굽기서는 모세의 출생, 10 재앙 사건(7-11 장)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14 장),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20 장) 돌판을 받는 사건 등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기서에 담긴 복음적인 의미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출애굽기는 총 40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사망한지 약 400 년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백만의 숫자로 늘어났다. 1 장 7 절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1 장 27 절에서 28 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후대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의 성취이다. 그러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1 장 13 절에서 14 절을 보겠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내용을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이 연상되게 된다. 요셉이 갔을 때는 총리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하면서 가문을 살렸다. 그러나 후대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먹고 살기에만 치중하다가 결국에는 노예생활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대는 세상의 포로가 된다. 그래서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진도와 선교를 놓치게 되면 가정과 선교도 놓치게 된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대학을 많이 세우니까 나라가 잘되는가. 군인을 많이 세우고 병원을 많이 세우니까 치유가 되는가. 아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후

로 출애굽기서는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40 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 그대로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다. 출애굽기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내용과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시스템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낸 곳이 물도 없는 광야였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 우리의 각인이 창세기 3 장, 6 장, 11 장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불드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빨리 무릎 꿇고 깨져야 한다. 빨리 그 생각을 깨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나를 깨는 것이다. 너무 많이 맞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이상한 상태가 된다. 너무 꾸지람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한다. 잠언 12 장 1 절에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도 같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배의 자리인 이 자리가 성공의 자리이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인 줄 믿기를 바란다. 여기서 예배에 성공해야 만이 진짜 성공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한다.

1.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리를 창세기 3 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악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후암의 현장에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

(1)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들을 어떠한 현장에서 구원해 주셨을까?

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바로는 9 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10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풀어 주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과 가정, 현장,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운동을 해야 하겠다. 이것이 237, 치유, 서밋운동이다.

②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세계 최고, 최강을 자부하는 애굽에서 속국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애굽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요셉을 통하여 잠시 고센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탄의 나라인 애굽문화에 동화되고 지배되고 말았다.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탄의 나라의 지배 하에서 살고 있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대부분 세상에서 이렇게 지배당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3 기업인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유대인들이 경제, 문화, 정치, 학문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선배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인턴쉽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중직자들과 후대들은 4 차 산업시대와 AI 시대, 친환경시대와 생명공학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전문성을 갖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RUTC 운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진도와 선교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애굽문화에 빠져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 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또 다시 이 세상에서 얻었던 많은 것들은 잃어버릴 것이다.

③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우상문화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소나 짐승들 그리고 심지어는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의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다.

④ 네 번째로, 육신적인 것들을 우선시하는 영적인 상태에서 구원해주셨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정욕을 우선시하는 백성들이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출애굽기 16 장 2 절에서 3 절 말씀을 보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의 손에 죽었다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리고 출애굽기 16 장 35 절에 보면 이후로 40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우선시 하는 복음적인 남은 자들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어야 하겠다.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

① 첫 번째로, 출애굽기 3 장 18 절 보면 희생제사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였다. 피 제사인 희생제사 즉, 복음적인 예배와 다락방이 시작될 때 흑암은 꺾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락방을 하게 되면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영적인 상태와 모든 것이 달라진다.

② 두 번째로, 전도자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다락방사역자, 교사, 팀장, 임원들과 구역장, 권찰, 전도인, 부장, 부감,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하나님께 세워주신 하나님의 전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이다.

③ 세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해방되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분은 그리스도 밖에 없으시다.

④ 네 번째로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 홍해의 사건은 단순히 물이 갈라진 사건이 아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건은 홍해가 갈라지는 보좌의 대역사가 일어난 전우주적인 사건인 것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다.

2.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영원한 복음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 첫 번째로, 모세의 호렙산(시나이산) 40 일은 영원한 복음시스템이다.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① 모세는 호렙산 40 일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다. 광야의 대장정을 시작하기 전, 모세는 하나님과 먼저 소통을 하였다. 우리는 중요한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한다. 모세는 성령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 일 동안 금식까지 하였다.

② 모세는 40 일 집중서밋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집중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다. 출애굽기 34 장 28 절 말씀을 보겠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십계명 판을 받을 때 40 일 금식을 한 번 한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3 차에 걸쳐서 금식기도를 하였다. 1 차는 출애굽기 24 장 18 절에, 첫 번째 금식기도를 마치고 십계명 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또 40 일 금식기도를 한다. 이것이 2 차 금식기도인데 신명기 9 장 18 절이다. 3 차는 그 후로 다시 십계명 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출애굽기 34 장 28 절이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을 때 정말 응답받고 싶다면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2) 두 번째로, 영원한 전도시스템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과 12 지파시스템이다. 출애굽기 18 장 21 절에서 22 절 말씀을 보겠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모세는 약 200 만에서 300 만의 백성을 이 조직을 통하여 통솔 할 수 있었다. 지금도 국가나 대기업들은 이러한 조직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성장의 요소가 되고 있다. 교회의 전도시스템도 이 조직이 잘되어 있어야 3 천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중직자들은 모델적인 오십부장, 백부장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3) 세 번째로, 영원한 복음시스템은 제사제도와 절기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제도와 절기제도를 통하여 복음과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셨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다.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이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수장절은 천국입성을 상징하는 절기이다. 이 절기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네 번째, 영원한 복음시스템은 제사장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와 영적인 사역을 위하여 제사장제도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다. 제사장은 오직 레위지파와 그중에서도 아론의 집안에서만 뽑도록 명령하셨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만 올인하도록 구별되어졌다.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제사장제도가 없었다면 복음의 언약은 지속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과 중직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껏 후원해야 한다.

(5) 다섯 번째, 영원한 복음시스템은 성막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막은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이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영적인 성물들은 모두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출애굽기 24 장부터 마지막 40 장까지의 긴 내용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인턴쉽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 주역이 되도록 교회를 RUTC 성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복지부터 모든 기능과 침대에 이르기까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산업과 모든 분야에서 후대들을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야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막 안에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성막(회막,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 지파가 십자가 대형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중심, 복음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영원히 남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결론으로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불잡을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끝까지 영원한 복음시스템 속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변함없는 비전은 237 나라, 5 천 종족들에게 광야와 성막에 담겨진 참된 복음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려주어서 언약의 백성들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출애굽기서를 통해 주신 언약을 24 시간 생각만 해도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모세가 중요한 시간표에 40 일 집중을 하였던 것처럼 조금만 집중해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먼저 나는 어디에서 구원 받았는지 기록해 보고, 내가 이 시대에 만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시스템은 무엇인지 기록해보기를 바란다.

오직복음 안에서 완전복음으로 변화되어 70 현장에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셋팅하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광야의 그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완성했던 것처럼 그 언약을,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